

비슬산에 전해진 “지혜와 자비”

동화사, 24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및 친견법회

스리랑카의 부처님 진신사리가 한국 대구 동화사로 이운됐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성문)는 11월 24일 스리랑카 반다라벨라 쿠루쿠데(Kurukude) 사원에 있던 진신사리 1과를 동화사 통일대불전으로 이운하는 행사와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했다.



11월 24일 동화사에서 봉행된 진신사리 이운 및 친견법회에서 주지 성문 스님 등이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

스리랑카 사원서 1과 기증받아

“한-스 불교 교류의 장 발돋움”

내년 대견사 완공되면 봉안 예정

동화사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진제 스님은 “수행과 신행의 중심인 팔공총림 동화사는 부처님 정법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찰”이라며 동화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동화사에 안치된 부처님 진신사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현재 중창 중인 대구 달성군 비슬산의 대견사다.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인 대견사에 봉안되기 때문이다.

대견사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이 주석했던 유서 깊은 고찰이었지만

“대마도의 기를 누르는 절”이라는 이유로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사됐다. 현재는 대구 불교계와 달성군이 업무협약을 맺고 중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창되는 대견사의 규모는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선당, 산신각, 요사채 등 4개 동으로 연면적은 186㎡(56평)이고 사업비는 50억 원이다.

현재 대견사지 삼층석탑은 1988년 복원돼 1994년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이 2002년 대견사지 시굴조사를 통해 6개동 72평에서 유구 37점을 수습했다

한편, 대견사가 있는 비슬산은 불교에서 수행된 고대 인도 힌두 신으로 비슈누(VISNU)를 한자어로 음역한 ‘비슬노(毘瑟怒)’에서 유래한 말로 거문고를 뜻한다.

신동철 기자 motp79@hyunbul.com

시골마을 절에 불자 밴드 결성 ‘화제’

청량사 등근 소리·꼬마풍경 창단 안동청소년문화센터서 첫 무대

첩첩산중 시골마을 절에 불자 밴드가 결성돼 화제다.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 성인 7인조 밴드 등근소리와 어린이 4인조 밴드 꼬마풍경을 창단, 11월 24일 안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첫 데뷔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7월부터 구성된 이들 밴드는 안동에 전용 연습실을 마련하고 꾸준히 연습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창단식 겸 데뷔무대를 갖게 된 것이다.

30대 남녀로 구성된 7인조 등근소리 밴드는 드럼(김경태), 기타(서보태·김명교), 베이스 기타(성일국), 건반(윤은정·유지영), 싱어(권해숙)로 구성됐다. 청량사 꼬마풍경 밴드는 드럼(서민경), 기타(김혜민·안지은), 건반(권다빈)으로 초등고학년을 위주로 멤버가 이루어졌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일요일 법회를 마치고 안동에 있는 연습실에서 늘 연습을 하고 있다”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등근소리와 꼬마풍경 11월 24일 창단식 장면.

나جا 청량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 지역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생명존중 세미나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회장 무원)는 천태종 삼광사에서 ‘생명경시풍조개선을 위한 생명존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11월 26일 부산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생명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죄의식 없는 낙태와 유명연예인의 자살, 무분별한 자살사이트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의 역할과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오홍숙 생명평화회장의 ‘생명 존중’을 주제로, 박경수 부산지사장은 “생명의 가치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해하고, 종교계는 심성의 승화를 위한 진심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광사에서 열린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생명존중 세미나 장면

윤리를 조망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회장 무원 스님은 “생명의 가치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해하고, 종교계는 심성의 승화를 위한 진심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백련불교 문화재단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성철 스님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이 시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고은 시인의 강연회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백련불교 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부산불교방송 공동 주최로 11월 2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선사에서 성철 계승(繼承)’을 주제로 성철 스님의 계승을 비롯해 현대 고승들의 계승을 고은 시인이 직접 시문학적인 관점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은 고은 시인 강연에 이어 12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초청, 두 번째 명사 강연회도 열 계획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푸른색 나무를 겨울에도 볼 수 있길

어제까지만 해도 곱게 물들었던 절 마당의 노란색 은행나무 잎이랑 빨간색 단풍나무 잎, 갈색의 느티나무 잎이 밤새 불었던 강풍에 모두 떨어져버렸다. 스님과 몇몇 불자들이 비질을 해서 떨어진 단풍잎을 치우느라 한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져 버렸다.

봄에 연녹색 잎이 나면서부터 암녹색으로 색을 바꾸던 낙엽활엽수들은 가을이 되면 노란색, 빨간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러한 낙엽활엽수들의 화려한 변화는 날이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면서 멈추고 만다.

낙엽활엽수들이 잎을 떨어뜨리는 계절이 되면 일 년 내내 변화가 없이 푸른색만

보였던 상록수들이 귀한 몸이 된다. 특히 소나무와 같은 상록침엽수들은 겨울철에도 변함없이 푸른색을 잃지 않아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양양의 낙산사에 불이났을 때 절 주변의 소나무들이 불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많은 절에서 건물주변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베어버렸다. 산사에서 소나무는 별개의 존재로 생각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였지만 그 이후 건물 주변 일정거리에서는 소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졌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록침엽수이지만 나무 중에서는 불에 견디는 힘이 가장 약하고 송진이 불을 크게 일으켜 피해범위를 넓게 만든다. 소나무보다

는 덜하지만 편백이나 화백 또는 주목과 같은 상록침엽수 역시 활엽수에 비해서 불에 약한 편이다. 불에 견디는 힘이 가장 강한 나무는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 팔손이나무, 사철나무와 같은 상록활엽수인데, 이들은 잎이 크고 두꺼워 수분을 다량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불에 잘 견디는 것이다. 낙엽활엽수도 나무에 따라서 불에 잘 견디는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지만 상록침엽수에 비해서는 내화력이 강하다.

사찰의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건물주변의 소나무들을 제거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겨울철 사찰의 경관은 삭막해져버렸다. 그렇다고 상록침엽수를 대신할 수 있는 상록활엽수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도 점차 온난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록활엽수들의 내한성이 커져 중부지방에서도 겨울철에 푸른색을 볼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무들을 사찰에 심어 사찰에서 예전의 활기찬 겨울분위기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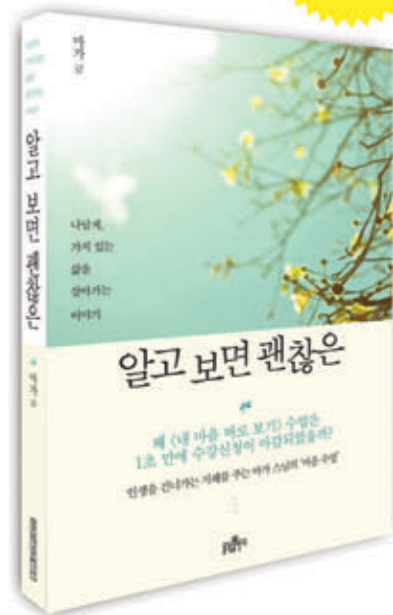


사찰화재를 막기 위해 건물 주변의 소나무를 제거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푸른색이 없는 산사의 겨울은 삭막하기만 하다. 경기도 3사찰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마가 글 | 256쪽 | 13,000원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덮고 일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법도가 되었다. “마구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자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저미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상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화제가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저미명상 대표, 한국아름다움위원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경인 교법사를 맡고 있다.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이미영 지음 | 248쪽 | 13,000원

그동안 니까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재가자들도 편하게 경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경전 내용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물로 초기경전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경전 구절 몇 가지를 추리고 설명을 보태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이 초기경전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 노릇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엮었으며, 부디 많은 사람들이 초기경전 니까야와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_서문 중에서

이미영 1964년 강원도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교 3학년 교수의 법회에 참여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경전을 읽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으며,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경전 관련 강의와 필집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역경 분야)을 수상했다. 현재 불광교육원에서 전일강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밖에 SBS <무명을 밝히고 보라살다의 사제>, YTN <지식키워드 리더오 북클럽>을 진행하는 등, 북클럽니트으로도 활동 중이다.